

동상





내가 만드는 자연도시!



이제인 | 고양 흥도초등학교 4학년

내가 시장이나 군수라면 우리 동네를 이렇게 가꿀래요. 먼저 독일의 생태마을 ‘보봉’처럼 자연과 잘 어울리는 동네로 만들고 싶어요. 태양열을 주에너지로 사용하고 미래 에너지로 풍력을 사용한 에너지나 필요 없어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한 에너지를 사용할 거예요. 또 친환경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은 되도록 쓰지 않고 생긴 플라스틱은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할 거예요. 또 질병을 방어하는 방어막 시스템을 설치할 거예요.

방어막에는 문을 달고 세척할 수 있게 만들어 그 문에서 바이러스를 감지하고 바이러스를 빨아들인 뒤에 그 문이 자동적으로 세척을 해서 바이러스를 철통방어할 것이예요.

마지막으로 휴양림을 동네 곳곳에 설치해 자연에서 쉬며 자연과 더 친해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요. 휴양림은 이래서 자연도시에 있기 좋지요! 제가 만들 도시를 자세히

소개하자면 농촌, 어촌, 산지촌을 테마로 한 마을, 여러 문화가 자연과 어울리는 마을로 나눠져요. 먼저, 공용으로 수확하는 장소를 만들어 일한 만큼 수확할 수 있는 곳을 촌락들을 주제로 만드는 마을에 건설할 거예요. 그러면 직접 기를 채소를 가져가 즐거운 식사시간에 먹을 수 있지요! 또 다른 도시와 색다르게 촌락체험을 할 수 있어 재미있지요.

여러 동식물을 주제로 정해 테마파크처럼 꾸밀 거예요. 도시 속에서 스탬프 모으기, 놀이기구 타기, 사진코스 등으로 놀 거리를 꾸미고 벽화로 그 지역의 자연환경, 특산물, 동물 등으로 꾸밀 거예요. 다음으로, 문화와 자연이 어울리는 도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 문화를 자연과 즐기니 색달라서 놀랍고 신기할 거예요. 예를 들면 스페인의 ‘탱고’를 비발디의 사계 중 ‘봄’에 맞추어 추든지 이탈리아의 카니발을 숲 같은 곳에서 개최해 보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자연과 하나 되면 다른 느낌으로 재발견돼서 문화가 널리 알려지고 자연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제가 만드는 자연도시의 수입이 늘어나 저희 마을의 경제도 좋아질 것이고 다른 마을의 사람들도 색다르게 변신한 문화들을 보고 큰 즐거움을 느낄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우리 마을이 이익을 얻으며, 자연 사랑을 느끼고 문화를 재탄생시켜 널리 퍼트릴 수 있는 자연을 이용해 여러 일을 하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마을들을 통틀어 그곳의 특색을 살린 박물관, 기념가게 등을 많이 만들 거예요. 박물관에는 마을의 동물들, 곤충들, 자연모형 등을 전시해서 그곳의 느낌을 살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을 더 잘 알게 되어 뿌듯함과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들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말한 태양열, 풍력 에너지, 자원을 재활용해 만든 에너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지역축제 열기와 자연에서 얻는 자원을 이용한 가구 박람회를 개최할 겁니다.

지역축제에서 그곳의 특산물을 팔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을 열 것인데요. 농촌이 주제마을인 곳에서는 농산물 수확하기, 농기구 타보기 등이 있고, 어촌이 주제마을인 곳에는 갯벌에서 조개 캐기, 물고기 잡기 등이 있고, 산지촌이 주제마을인 곳에서는 치즈 만들기, 양봉업 체험 등이 있어요. 문화마을은 지역축제에서 공연보기, 문화체험, 공연하기 등을 자연과 같이 체험할 거예요. 가구박람회는 자연에서 얻는 자원을 이용한 가구로 열 것인데요. 이 박람회에서 가구를 사서 집에 배치해 놓으면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이 나서 좋은 기분이 들어요. 이처럼 저는 모든 자연환경, 동식물, 사람이 어울리는 촌락 같은 느낌도 나는 자연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만약 이런 도시를 만들면 많이 와주세요!